

“종단-동국대 힘 합쳐 제2 도약 이뤄내야”

총무원장 자승스님, 26일 포럼서 결속 당부
 “현안 많지만 藥大유치 최우선 과제로 여겨”

“종단과 학교가 새로운 각오 속에서 변해야 합니다.” “종단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 불교종흥과 학교중흥을 이룩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 동국대 총동창회 주최로 열린 동국포럼에 참석해 종단과 학교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강연전문은 인터넷 불교신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소통과 화합, 불교종흥을 모토로 한 제33대 조계종 집행부가 “혁신을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 종단이 사회에 보여준 불신을 일소하고, 참회를 선언하며 새로운 출발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이어 스님은 “동국인들도 한바탕 한껏으로 종단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 불교종흥과 학교중흥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동국대가 건학 1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지녔지만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종단·재단·학교·동창회·재학생이 자랑스러운 동국대를 재건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이날 동국포럼 강연은 취임이후 대외적으로는 처음 종단운영과 총림학교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그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종단과 동국대가 양극을 청산하고, 상호 발전을 통해

불교종흥과 학교중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동국대 이사장 정현스님을 비롯해 오영교 동국대 총장과 이연택 동국대 총동창회장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현재 ‘종단과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사장 정현스님은 “학교발전을 위해 이사회를 안정시키고, 종단과의 관계를 생산적이며 협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오영교 총장은 “동국대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은 공감하면서 서로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힘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해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는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 동국대 총동창회 주최로 열린 동국포럼. 자승스님은 이날 총무원장 취임이후 대외적으로는 최초로 종단운영과 총림학교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종단과 학교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그동안 종단과 학교의 관계가 비생산적·비협조적이었고, 학교발전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연택 동창회장의 취임사 역시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재단·학교·동문은 힘을 합쳐 새로운 모습으로 제2의 도약을 가져와야 할 시기”라는 대목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동국대 약대 유치를 위해 종단과 학교가 최선을 다하자”면서 “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총무원장·이사장·총장·동창회장이 사표 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동국대가 로스쿨에서 탈락했을 때 22만 동문과 불자들이 실망에 빠졌다”면서 “종단에 현실적으로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9일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동국대 약대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종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2면에 계속

“불교종흥 첫 걸음”

총무원장-총무원
 ‘이메일 첫 소통’

지난 19일 종단 내부 전산망에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고 총무원과 ‘직접 소통’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총무원들에게 첫 메일을 발송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오후 ‘총무원 여러분’이란 제목의 메일에서 총무원들을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 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여러분의 협력이 없으면 종단 4개년 발전계획과 불교종흥의 사명은 공허해지고 종단은 계속 쇠락할 것”이라며 “왕의성과 경협·지식들을 모두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19일 조희 직후 이메일을 개설한 취지에 대해 “왕상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메일은 직접 확인하고 비밀은 보장하겠다. 응대해 줄 것을 제외한 모든 제안과 의견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메일 개설과 첫 편지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조합 원외 박정구 위원장은 “내부적인 소통과 화합이 불교종흥의 첫걸음이라는 뜻을 많은 총무원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불자 마음 모아 아이티에 희망을”

화계사·서울노인복지센터·청림회
 사찰 복지시설 곳곳 ‘보시행’ 확산

확인된 사망자만 15만 명, 모두 35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아이티 지진참사에 대한 불교계의 자비행이 지역 사찰과 복지시설, 일반불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스님)는 지난 22일 총무 수암스님과 신도회 간부들이 아이티 긴급구호기금 1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화계사에서 값진 보시를 해줘 감사하다”며 “사찰과 신도들의 마음을 차곡차곡 모아 아이티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선목스

님)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문경 김룡사로 떠난 순례법회에서 아이티 지진피해 희생자들의 왕생극락과 피해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구호기금 모금행사를 전개했다.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효경스님)는 22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관에서 거행된 ‘대전시민과 하나 되는 축제 부처님 성도절 대법회’에서 스님들이 모금함을 직접 들고 행사장을 도는 탁발로 모금을 주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스님)도 관내 회원과 직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아이티 지진 모금행사를 실시했다.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한 모금행사는 ‘달

인 문화사랑’ 회원인 노인들이 직접 나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단체인 ‘달굴인 문화사랑’은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의 보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아름다운동행과 본지를 통해 성금을 기탁하는 사찰과 불자들의 온정도 계속 이어져, 25일 오후 4시 현재 모두 1억6187만2370원의 구호기금이 답지했다.

▶관련 기사 3면

이성수 김하영 기자
 이시영 충남지사장 lsy@bulgyo.com

지난 26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행사가 열렸다. 김형주 기자



社 告 세상을 위한 불교, E-GREEN BUDDHA의 세계로!

경인년 신년 대법회 및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신문사는 불기 2554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지구촌 및 국가사회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다짐하고자 스님 및 덕망 있는 인사들을 법사로 모시고 아래와 같이 신년 대법회 및 강연회를 불행합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무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4(2010)년 2월 1일(월) ~ 11일(목), 10일간(토·일 제외) 오전 11시 ~ 12시 30분.
- 장 소 : 마포 다보빌딩 3층(BBS) 대법당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불교방송빌딩 3층
- 법 사 : 2월 1일(월) : 임계법회
 미산스님(서울 상도선원 주지, 중앙승가대 교수)
 2월 2일(화) : 정무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안성 석남사 주지)
 2월 3일(수) : 금강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2월 4일(목) : 지운스님(동화사 승가대학 학장, 자비선사 주지)
 2월 5일(금) : 김형효(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월 8일(월) : 김재영(동방불교대학 교수, 청보리회 지도법사)
 2월 9일(화) : 우희중(서울대 교수)
 2월 10일(수) : 박영재(서강대 교수, 禪道(성찰나눔실천)會 法師)
 2월 11일(목) : 회향법회
 고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봉화 금봉암)

- 주 최 : (재)대한불교진흥원·불교신문사
- 문 의 : (재)대한불교진흥원(703-0108)

함께 행복해지는 선물

“연우와 함께” 준비하세요

연우와 함께는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 꿈과 바람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의 기업을 지향합니다.

산사 식품

6년근 2뿌리 78,000원	8년근 3뿌리 175,000원
6년근 3뿌리 98,000원	8년근 5뿌리 278,000원
6년근 5뿌리 162,000원	

영평사 장류세트 65,000원

과일류

사과 15과 48,000원	배 11,12과 48,000원	과일혼합세트 1호 58,000원	과일 중품세트 78,000원	석류 15과 47,000원
사과 13과 54,000원	배 9,10과 55,000원	과일혼합세트 2호 58,000원		석류 11과 49,000원

건강생활

선원사 연근차(지통) 15,000원	한지양말 2족세트 18,000원	여 한지 내의 95,000원	남 한지 내의 98,000원	영평사 지족세트 35,000원	보림선원 봉숭아 20,000원
선원사 연잎차(지통) 15,000원					

www.lotuscoopmall.com 전화주문 02)720-7393~4

더욱 다양한 상품은 연우와 함께 쇼핑몰에서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